

드라마 시장 '조선구마사' 후폭풍

역사 왜곡·중국풍 설정 논란 속 시대극 제작 '빨간불' 높아진 시청자 눈높이·감수성... 철저한 고증 필요

역사 왜곡과 중국풍 설정에서 비롯된 SBS TV 드라마 '조선구마사' 폐지 사태가 드라마 시장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한결 높아진 시청자 눈높이와 민감해진 감수성, 그리고 변화무쌍한 동북아 외교관계 속에서 특히 시대극 제작은 제작사와 방송사의 철저한 자기 검열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층 강해진 시청자 파워가 광고주의 제작 지원 철폐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선구마사'의 경우 방송 후야 논란이 불거졌지만 되짚어보면 이미 잠재적인 위험이 있었다.

크리쳐 장르로 제작하면서 조선 태종기라는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가져온 것부터 리스크는 존재했다. '조선구마사'가 폐지된 배경에는 시청자 반증 정서 외에도 역사 왜곡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태종 시대 주요 인물 설정과 복식 등에 픽션이 가미되면서 시비가 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전주 이씨 종친회가 대응

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판타지에 실제 역사를 가미하면 시청자에게 몰입감은 주지만, 동시에 위험도 크다는 것은 '조선구마사'를 집필한 박계욱 작가의 전작 '철인왕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철인왕후'도 흥행한 덕분에 가려졌을 뿐, 조선 철종기를 배경으로 했다. 그 작품에 등장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종친회가 항의해 제작진이 가상 성씨로 수정한 사례가 있다.

'조선구마사'를 '철인왕후'의 박 작가가 집필하고, 제작사 역시 '철인왕후'와 겹치는 YG스튜디오플렉스, 크레이브웍스라 역사 왜곡이 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은 예견된 것이었다.

'조선구마사' 폐지 사태에 '철인왕후' 역시 역사 왜곡 논란이 다시 일면서 다시보기를 전면 중단하고 주연 배우들도 다시 비판받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JTBC '설강화' 등은 방송하기도 전부터 공개된 시놉시스만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는 등 시대극 시장 전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역사 왜곡과 중국풍 설정으로 논란이 돼 폐지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연합뉴스

'설강화'의 경우 역사 왜곡은 없다고 못 박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준비 중인 시대극 중에는 제작과 고증을 숙고 중인 경우도 적지 않다.

tvN에서 하반기에 선보일 드라마 '잡종족'은 중국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 가장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28일 "중국 원작을 사서 콘셉트만 차용하고 내용은 완전히 바뀔 것임에도 진행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가에서는 사극을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되기는 하겠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이상 결국 철저한 고증만이 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내부에서 시사하는 것과 외부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기존에 1명으로부터 자문했다면 앞으로는 10명 이상을 선정하는 등 내·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펜트하우스' 시즌2 시청률 29.2%

시즌1 마지막회 28.8% 넘어 종영 앞두고 논란은 '여전'

다들 주 종영을 앞둔 김순옥 작가의 SBS TV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가 시즌1 최고 시청률을 넘어섰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한 '펜트하우스2' 12회 시청률은 22.9~29.2%로 집계됐다. 2부 29.2%는 시즌1 마지막회에서 기록한 28.8%를 넘어선 성적이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31.5%까지 치솟았다.

전날 방송에서는 심수련(이지아 분), 오운희(유진), 천서진(김소연)의 연합으로 주단태(엄기준)가 '나 애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몰락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천서진 역시 심수련과 배로나(김현수)의 납치, 감금,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고 오운희는 복수를 마무리한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김 작가는 시즌1에 이어 시즌2에

서도 다양한 반전 장치와 쾌속 전개로 시청자의 눈을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다. 배우들 역시 시즌1 보다는 여유롭고도 몰입감 있는 연기를 선보이면서 장르극과 코미디, 멜로를 자유자재로 오갔다.

또 지상파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수위 높은 장면들이 연출돼 평이 그 갈라기도 했다. 물론 전날처럼 고수 위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 시청가로 편성되기는 했지만 안방극장, 특히 지상파에서 시청등급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판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펜트하우스2'는 다음 달 2일 종영하며, 시즌1 종영 때와 마찬가지로 스페셜 방송이 편성될 예정이다. 시즌3는 상반기 내 돌아오며, 주 1회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 2TV 주말극 '오케이 판자맨'은 22.2-26.7%, tvN 주말극 '빈센조'는 9.3%(이하 유로가), JTBC 금토극 '괴물'은 4.279%, OCN 주말극 '타임즈'는 1.4%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비운세, 핸드백·드레스 등 11억 상당 도난

LA 창고 3곳에 도둑 들어

미국의 팝스타 비운세(사진)가 100만달러(11억3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했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27일(현지시간)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비운세가 설립한 매니지먼트사 파크우드 엔터테인먼트가 임대한 로스앤젤레스(LA) 창고 3곳에는 이달 초 두 차례 도둑이 들었다.

절도범들은 비운세가 임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명품 핸드백과 드레스, 아이 장난감은 물론이고 비운세 개인 스타일리스트의 사진까지 썩 쓸



이간 것으로 알려졌다. LA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절도범을 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품격 있는 심리 드라마... 영화 '더 파더'

치매 걸린 아버지와 딸 이야기 엔서니 흠킨스, 아카데미 도전

80대 노인 엔서니(엔서니 흠킨스)는 은퇴한 뒤 평생을 가꾸온 런던의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유일한 가족인 딸 앤(올리비아 콜맨)이 가까운 곳에 살며 종종 들른다. 명석하고 자신만의 원칙과 취향을 가진 엔서니의 완벽한 일상에도 균열이 생긴다. 딸의 얼굴도, 집도 낯설게 느껴지고 조각나고 뒤섞인 기억에 혼란스러워진다.



영화 '더 파더'의 엔서니 흠킨스(오른쪽)와 올리비아 콜맨. 연합뉴스

엔서니와 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흔히 겪어내야 할 일들을 비슷하게 겪는다. 엔서니는 늘 차는 시계를 때 번 어디에 뒀는지, 딸이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종종 잊지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간병인들을 내친다.

단순한 이야기는 누구의 기억인지 사실인지 착각인지 알 수 없도록 시점을 오가며 긴장감을 끌어올려다가는,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사투리는 사건으로 겪어내야 하는 인물들의 내면과 감정을 파고든다.

결국 수십 년 동안 견고하고 안온하게 지켜오던 세계가 흔들리고 무너져내릴 때 '대체 내가 누구냐'고 묻게 되는 엔서니의 혼란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관객을 함께 몰아넣는다. 배우 엔서니 흠킨스가 자신의 이름을 딴 주인공 엔서니로 분해 품격 있는 연기로 영화의 품격을 높였다. 흠킨스는 이 영화로 84세의 나이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올해 후보 중 최고령이자, 1992년 '양들의 침묵'으로 수상한 이후 29년 만의 제도전이다.

2019년 '더 페이버릿:여왕의 여자'에서 히스테릭한 영국 여왕 역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올리비아 콜맨이 흠킨스와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영화는 한정된 공간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연극과 닮았다. 2012년 프랑스에서 초연해 호평받은 동명 연극이 원작이다. 원작을 쓴 작가 플로리안 켈러가 엔서니 흠킨스를 염두에 두고 각색해 직접 연출했다. 4월 7일 개봉. 연합뉴스

홍콩서 장국영 추모 콘서트

만우절 날 거짓말처럼 세상을 등져 큰 충격을 줬던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장국영)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홍콩에서 열린다.

홍콩관광청은 다음 달 1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부터 1시간 동안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을 배경으로 '레슬리 청 추모 온라인 콘서트 2021'이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레슬리 청은 1980년대 홍콩 영화 전성기를 이끈 장국영의 영문 이름으로, 그는 2003년 4월 1일 오후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이번 행사에는 함께 듀엣곡을 발표했던 쉬관타(허관걸)를 필두로 장국영과 인연을 맺었던 연예인과 예술가들이 참가한다.

이 콘서트는 HiEGgo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중계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30 두더지콩 8:00 땀방울 유치원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7:00 KBS 아침 뉴스타임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세 2020	9:40 우리집 유치원 9:45 두더지콩
8:25 아침미담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8:15 KBS 아침 뉴스타임 3부 9:1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15 클래스 e 10:30 땀방울 유치원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달이 뜨는 강(재)	9:45 기쁜 좋은 날 10: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10:30 땀방울 유치원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7:00 EBS 뉴스 17:35 포텐TV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9:05 드라마 길들이기 19:35 자이언티 펑TV
11:50 불행해도 괜찮아 11:55 한국의 인류유산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2:10 달이 뜨는 강(재) 13:2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0 시크릿 유주 별의여신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13:00 내드워그 공룡기획 문화스캐저	13:50 연중 라이브(재) 15:00 KBS 뉴스타임	12:50 뽀뽀보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14:00 뉴스브리핑 16:00 유희 NOW 제주(재)	7:00 김다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5:30 TV 유치원 16:00 특선 다큐	14:25 중계방송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비초청)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순간포화	12:00 CBS맞춤뉴스 12:05 천영미의 뉴스쇼 13:30 생활의 달인 2부 15:00 CBS 뉴스 17:05 시사거점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현의 뉴스쇼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희의 가스펠 아워
14:30 보물섬(재) 15:20 콘텐츠 인테너(재)	16:00 특선 다큐 오기방고 대홍수(재)	16:30 기쁜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50 순간포화 세상에 이면일이(재)	
16: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6:50 다큐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 ET	17:15 구해줘! 홈즈 스페셜		
18:00 6시 내교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우기 20:30 속이도 골결	18:30 2TV 생생정보 19:50 이스 몬테크리스토 20:30 박원숙의 깊이 심사다 3 21:30 달이 뜨는 강 22:10 달이 뜨는 강 22:40 2021 스페셜 토크쇼 <Let's BTS> 1부 23:40 2021 스페셜 토크쇼 <Let's BTS> 2부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0 밥이 되어라 20:45 MBC 뉴스데스크 1부 21:20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안배우면 다행이야 1부 21:55 안배우면 다행이야 2부 22:40 쓰리미 스페셜	18:50 내모세모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부 너는 내운명 2부 23:40 나이트리인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볼서 광명중국어 8:30 방송관련초경연대회 수상자 9:00 KCTV 뉴스 9:30 4-3 특집 다큐멘터리 12:30 KCTV 시청자세상 13:10 4-3 특집 다큐멘터리 14:30 방송관련초경연대회수상자 15:20 스포츠 당구 더 레슨 17:00 KCTV 뉴스 20:00 4-3 특집 다큐멘터리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29일

김종상 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동 교수(010-5233-6136)

36년 외출이나 활동 할 일이 생긴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 48년 문서우이 길하나 재물에 지출 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60년 갑작스런 만남이나 모임이 있다. 72년 현실, 건강 등이 오히려 불행관리에 신중. 84년 생각이 잘 맞는 파트너가 생기거나 기쁜 소식이 온다.

42년 돈 때문에 가정엔 큰 소리가 있다. 투기나 과소비 금물. 54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영업하면 이익이 있다. 66년 경쟁자 라이벌의 등장으로 심기가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78년 서류작성에 실수 또는 문제가 있으니 중요계약은 다음으로 미뤄라. 90년 현실에 만족하라. 과욕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37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 49년 자식에 대한 일로 신경이 예민하고 추진하는 일은 다소 지체된다. 61년 자만하면 되던 일이 안되는 법. 여유와 이해가 필요. 73년 반가운 소식이나 초대돼 갈 일이 생긴다. 86년 마음 고생이 심하니 번거로운 일을 만들거나 두 가지 일을 하면 몸살만 난다.

43년 돈 문제로 고민이 있으며, 고부갈등이 있다. 55년 음주에 신경을 써. 경찰이 나를 반갑게 바라본다. 67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이성간의 불륜은 화를 받는다. 79년 활동성 있는 취직이나 직업이 생기니 원하는 조건에는 미흡하다. 91년 형제, 강박이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니 마음을 평온하게 하자.

38년 망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며 주변사람을 다소 조심. 50년 좋은 만남 또는 기쁜 소식이 있으나, 신경 쓸 일이 생긴다. 62년 물이 흐르듯 애정사망의 말도 나에게 중요하니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 74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부터 인정 받는다. 86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44년 사업자는 회복이 되어간다. 깨끗하게 하면 더 유리하다. 56년 동업이나 신규창업을 하고자 분주하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자금력이 필수. 68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논쟁.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가 오고 간다. 80년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은 고민이 많다. 92년 병원엔 갈 일이 생기며 건강관리가 필요.

39년 생각이 깊어서 약속을 두는 격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51년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다. 신규사업은 가능. 63년 사사로움 감정이 있다면 풀라. 안 풀면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75년 이성교제 다각화. 기혼자는 가정불화. 87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경청하지 마라.

45년 기쁨이 생기고 문서상 이익이 증가하니 몸을 아끼지 마라. 57년 수입도 있으나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교육비 증가가 생긴다. 69년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니 윗사람의 칭찬이 반갑게 나를 맞이한다. 81년 새로운 시작. 번승수가 있다. 대인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라. 93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40년 충언과 간언을 구별하는 귀가 필요. 52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의욕이 강한 활동인에게는 선악이 생긴다. 64년 자녀의 직업으로 등분서주. 제일은 매출이 증가. 계약이 원만하다. 76년 동업이나 창업은 심사숙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 즉흥적, 조급함은 실패의 원인. 88년 만남이 길하고 순조롭다.

46년 착각과 일시적 혼란으로 실수를 하니 분심수 조심. 58년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발생. 멀리 출타 금지. 70년 원하는 결과나 능률에는 스스로 만족을 못하니 추진하는 업무에 인정받는다. 82년 현실을 직시하라. 환상과 낭만의 추억은 훗날 기억하고 조끼 귀가. 94년 친구들의 우애가 있어 든든하다.

41년 손에 따르면 만사형통.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를 가져라. 53년 건강에 무리가 따르니 원행은 삼가. 65년 일과 업무에 몰이 분주하다. 자식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77년 목표를 향해 적극 추진하라. 직장인은 변동하지 말 것. 89년 하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과 같다.

47년 대인관계 친화력으로 인정받는다. 59년 인생은 도전이다. 의타심과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넓은 세계로 기지개를 펴라. 71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창업, 취업 길이다. 83년 재물지출 손재수가 있으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95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니 마음을 넓게 갖는 여유가 필요.